

사실상 무한대의 참가인원으로부터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남향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봉
- (임핑 동남향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320-7700



10일 상하이 흥커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서 한국의 기성용이 후반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우효숙 '인라인롤러 여왕'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3관왕... 한국 선수론 첫 영예

인라인롤러의 여자 간판 우효숙(22·청주시청)이 2008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우효숙은 10일(한국시간) 스페인 히혼에서 이어진 대회 6일째 여자 로드 P(포인트) 10,000m에서 20점을 따 중국의 귀단(7점)을 압도적인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첫날과 둘째날 EP(제외 포인트) 10,000m와 E(제외) 15,000m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한 우효숙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탄 첫 한국 선수가 됐다.

또 콜롬비아에서 열린 지난 대회에서도 P 10,000m와 EP 10,000에서 금메달을 탄 우효숙은 EP 10,000m에 이어 두 종목을 2연패하며 '장거리 여왕'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주니어 시절 세계선수권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며 두각을 나타낸 뒤 국제 대회에서 매번 은메달과 동메달에 머물며 아깝게 우승을 놓친 것만 했던 우효숙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처음으로 성인 무대 금메달을 따내며 이름을 알렸다.

이어 열린 여자 주니어 E(제외) 20,000m 이슬(인천 신승고)이 금메달을 추가한 한국은 종합 메달 순위에서 금메달 8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2위 군데기에 나서며 인라인롤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전망을 밝혔다.

대회에 한국과 함께 출전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은1)과 대만(동2)이 메달을 따지만 아직 한국의 기량과는 격차가 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가 없다.

답답한 '허무 축구' 간신히 비겼다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기성용 후반 동점골... 북한과 1대1

한국 축구가 80일 만의 '코리아 데비'에서 북한과 공방 끝에 또 승부를 가리지 못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 승에 실패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스타디움에서 열린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B조 최종예선 1차전에서 홍영조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지만 기성용(서울)의 만회골에 힘입어 1-1로 비겼다.

이로써 한국은 승점 1을 얻는데 그쳐 남아공 월드컵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못했다. 북한과 역대 상대전적에서 5승7무1패의 우위를 점했으나 지난 2005년 8월4일 전주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부터 북한전 5경기 연속 무승부 행진을 계속했다.

허정무 감독은 원톱 스트라이커로 낙점했던 신영록(수원)이 허벅지 부상으로 출장이 어려워지자 조재진(전북)에게 최전방 공격수 임무를 다시 맡겼고 좌우 날개에 김치우(서울)와 최성국(성남)을 세웠다.

한국은 전반 3분 김치우의 원발 중거리슛으로 포문을 연 뒤 5-4-1 전형을 기본으로 한 북한의 밀집 수비를 허리기 위해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 전반 13분 오병석의 오른 쪽 측면을 돌파한 뒤 조재진의 머리를 겨냥하고 크로스를 올렸으나 골키퍼 리명국에게 잡혔고 김치우의 왼쪽 크로스에 이은 최성국의 헤딩은 공중으로 높게 뛴다.

강한 공세를 펴던 북한이 후반들어 먼저 한국의 골문을 갈랐다. 북한은 후반 19분 한국 골문에서 볼 경합을 하던 홍영조가 옷을

잡아당긴 김남일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홍영조는 오른발로 골문 왼쪽 모서리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한국은 반격을 펼친 끝에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다. 구세주는 지난 5일 요르단과 평가전에서 A매치에 데뷔했던 대표팀 막내 기성용이었다. 기성용은 후반 24분 김두현이 아크 정면에서 살짝 짝어 차주자 가슴 트래핑으로 공의 스피드를 떨어뜨린 뒤 넘어지면서 감각적인 발리 슈팅을 날렸다. 북한 골키퍼 리명국은 몸을 던졌으나 공은 왼쪽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양팀은 이후에도 공방전을 펼치고도 추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위성미 '다시 첫 관문부터'

상금랭킹 100위권 밖
LPGA 진출 위해선
캘리포니아스쿨 나가야



천만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후원금을 받는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위해 캘리포니아스쿨에 나갈 처지다.

위성미의 부친 위병욱 씨는 9일(한국시간) "다른 선택이 없다"며 "캘리포니아스쿨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위성미는 17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에서 열리는 지역 예선부터 치러야 하고 30위 이내에 들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2005년 프로 선수가 됐으나 캘리포니아스쿨을 거치지 않고 LPGA 투에 입성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스쿨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셈이다.

LPGA 투에는 비회원이라도 연간 6개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할 수 있으며 우승하거나 상금랭킹 80위 이내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으면 이듬해 투어 카드를 부여한다.

그러나 위성미는 예선을 거쳐 자력으로 출전한 US여자오픈을 포함한 7개 대회에서 출전했지만 6만2천763달러를 받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박지성 뺀 것은 힘든 결정" 맨유 퍼거슨 감독 밝혀



알렉스 퍼거슨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사진)이 지난 5월 2007-2008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박지성(27)을 제외한 것에 대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퍼거슨 감독은 10일(한국시간)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자체가 참 곤란했다. AS로마와 준결승, FC바르셀로나와 준결승에서 박지성의 활약이 대단했기에 내가 그동안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날으는 미녀새' 한국 온다

베이징올림픽 육상 영웅들이 25일 한국 땅을 찾는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옐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사진), 남자 110m 허들 세계기록(12초87) 보유자 다이론 로블레스(22·쿠바) 등이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8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육상 스타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황색 탄환' 류상(25·중국)의 부상 불참으로 베이징올림픽 남자 110m 허들에서 손쉽게 금메달을 목에 건 로블레스와 남자 800m 금메달리스트 윌프레드 번게이(캐나다), 5m5를 넘어 24번째로 세계기록을 갈아치운 이신바예바 등이 주요 선수들이다.

대구스타디움 100m 트랙에서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9초대 인간 탄환들을 구경할 수 있다.

로드니 마틴(미국·최고기록 9.95), 마

대구국제육상경기 25일 개막
이신바예바·마틴·프레터 등
세계적 육상 스타들 총집합

크 번스(트리니다드토바고·최고기록 9.96), 마이클 프레터(최고기록 9.97), 네스타 카터(이상 자메이카·최고기록 9.98) 등 자신의 기록이 9초대 선수 5명과 10초대 선수 2명 등 세계 정상급 7명이 출전해 폭풍의 질주를 벌인다. 한국 100m 최고 기록은 1979년 서말구 현 육상 총감독이 세운 10초34다.

또 남자 200m에는 크리스토퍼 윌리엄(자메이카·20.02), 브랜든 크리스티안(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최고기록 20.12), 브리언 드징가이(짐바브웨·최고기록 20.12) 등 20초대 선수 3명 등 모두 5명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여자 100m에는 올 시즌 랭킹 1위인 토리 에드워즈와 로린 윌리엄스(이상 미국)의 경쟁이 펼쳐지고 여자 200m에는 데비 퍼거슨 맥켄지(바하마·최고기록 22.19)와 라스타에 무어(미국·최고기록 22.46) 등 22초대 선수 3명 등 6명이 기량을 겨룬다.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멀리뛰기 스타 타티야나 레베데바(러시아), 베이징올림픽 남자 400m 허들 동메달리스트 버슨 잭슨(미국) 등도 참가해 세계적인 기량을 뽐낼 태세다.

이날까지 참가 예정 외국 선수는 90여 명으로 각 종목별 세계랭킹 상위 30위 이내 61명, 50위 이내 8명 등이다. 국내 선수로는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110m 허들 한국기록(13초55)을 세운 이정준(안양시청),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삼단뛰기에서 톱 10에 오른 김덕현(광주광역시청) 등이 참가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견준다.

김종국 11회 끝내기 투런포

KIA 5연패 탈출... 7 대 5 SK 꺾어



KIA가 천신만고 끝에 5연패에서 탈출했다.

KIA 타이거즈는 10일 두들길 야구장에서 벌어진 SK와이브스와 경기에서 김종국의 11회 연장 끝내기 홈런으로 7-5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초반 KIA 이용규의 빠른 발이 잠자던 팀 타선을 깨웠다. 1회말 선두타자 이용규는 볼넷을 얻은 뒤 도루로 2루를 밟았다. 김원섭의 2루수 앞 땅볼 때 3루로 질주했던 이용규는 장성호의 내야안타 때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올렸다.

상대 실책으로 만든 2사 만루에서 차일목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점수는 3-0이 됐고, 2회에도 김원섭의 2루타로 1점을 추가했다.

선발 데이비스는 3회 정근우에게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7이닝동안 3피안타(1 홈런)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3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8회 3루수 김주영과 1루수 장성호의 연속 실책에 이어 이재원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주

며 KIA는 4-2로 쫓기게 됐다. 이후 1사 2-3루의 위기가 계속되자 마무리 한기주가 일찌감치 등판했지만 볼넷과 싹쓸이 2루타를 맞아 4-5로 역전당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모처럼 KIA의 뒷심이 발휘됐다. 9회말 1사 2·3루에서 이재주의 적시타로 5-5를 만든 KIA는 연장 승부에 돌입했고, 연장 11회말 김종국이 김원형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짜릿한 투런 홈런을 쏘아올리며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종국은 이날 4회 박진영의 대주자로 들어가면서 통산 1천3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다시 2군행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진 최희섭(29·KIA)이 2군으로 내려갔다.

KIA는 10일 광주 SK전을 앞두고 최희섭을 2군으로 보내는 대신 내야수 박진영(23)을 1군으로 끌어올렸다.

최희섭은 최근 4경기에서 8타수 무안타에 그치는 등 방망이가 맞지 않았다.